

[창당 발기취지문]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 보수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한 정당의 창당을 원하는 마음을 한 목소리에 담아 만방에 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선배 세대의 피땀의 희생과 노력으로 경제역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자유민주주의는 안으로 끓어 희생이 불가능한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여 시간 동안 목도한 선거제도의 몰락이 그 큰 증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지도자를 뽑는 게 요체입니다. 그 가장 큰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확립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의 선거제도는 한 없이 유린되고 훼손됐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을 기약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자신들의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새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공동체의 파괴를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에 입을 닫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또 사회의 병리현상에 눈을 뜨고 경종을 울려야 할 언론마저 한 통속이 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우파 정권마저 부정선거 문제를 백안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아스팔트와 법정에서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우리 동지들은 이제 그 힘이 다해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보수주의가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기득권이 아닌 자유라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피를 쏟으면서 힘들게 얻어낸 그 자유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그 똑같은 크기의 결의로 우리는 우리의 공명선거를 지켜낼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 없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독재자의 이익을 영속적으로 지키는 악세사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공명선거를 논하는 자리에서 좌파와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됐든 공명선거를 가로막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정의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힘을 모아 맞서 싸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누가 됐든 손상된 선거제도를 복원하고 치료하기 위해 손을 드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야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그 차갑고 그 뜨거웠던 겨울과 여름을 네 번씩이나 견디며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때 우리는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룩한 정권교체였건만 우리가 뽑은 우파 대통령마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공명선거 앞에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명선거는 우리의 전우요, 부정선거는 우리의 적일 뿐입니다. 부정선거를 말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정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외칩니다. 부정선거는 망국의 병이다!

우리는 그 병을 고쳐낼 것입니다.

그 병을 깊이 인식하고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동지들이여,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 모든 것을 떠받칠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애쓰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애국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세계 만방의 자유민주 세력의 총화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공명선거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감사합니다.

2024.5.11

가가호호공명선거당 (가칭)창당준비위원회